

강지환

“더 코믹해지고 더 쫄깃해져요”

OCN ‘작은 신의 아이들’ 강지환·김옥빈

“얼마 전 생일에도 묘지를 파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OCN 주말드라마 ‘작은 신의 아이들’에서 ‘과학 수사의 화신’ 형사 천재 인으로 변신한 배우 강지환(본명 조대규·41)은 이같이 말하며 웃었다. 강지환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릴러극임에도 여러 코믹 요소들이 교차하면서 극이 더 매력적인 것 같다”며 “코믹 요소가 너무 극의 흐름을 해치지 않도록 잘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시청자들이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다. 이 기운을 받아들여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지환은 촬영 중 기억에 남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얼마 전 생일이었는데 드라마 내용이 이렇다 보니 그 날도 포크레인으로 묘지를 파서 시체를 꺼내는 장면을 찍었다”며 “심지어 제가 모르고 관을 밟는 바람에 관 뚜껑이 부서지는 기이한 일도 겪었다. 드라마가 잘될 징조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청률 목표는 처음부터 5%였다”며 “스릴러 장르 특성상 마지막에 큰 반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피해자의 죽음에 빙의하는 능력을 지닌 형사 김단을 연기하는 배우 김옥빈(31)은 “스릴러 장르라 극이 무거울 수 있지만 유쾌한 부분도 많은 덕분에 재밌게 촬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는 김단이 섬마을에서 벌어진 굿판에서 ‘접신’(接神)했던 것을 꼽았다.

“단이가 굿하는 것을 보던 도중 갑자기 ‘공수’(빙의 현상)가 터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드라마를 촬영한 지 얼마 안 돼서 찍은 거라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 나왔더라고요. 뿌듯했죠. 그런 장면을 실제로 목격한 적이 없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다 보니 여러 종류의 굿을 보게 됐는데, 무서운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달래주는 아름답고 슬픈 굿도 있더라고요. 편견이 사라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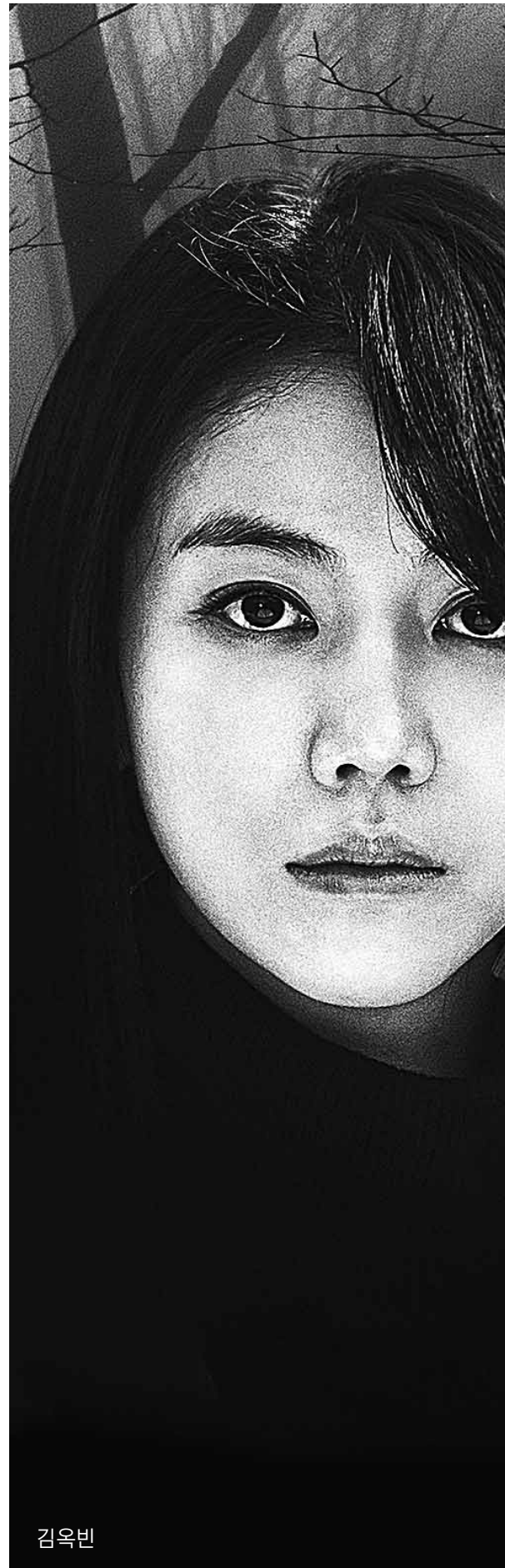
그는 그러면서 “빙의 연기는 연습을 많이 해서인지 현장에서 한 번에 다 ‘오케이’를 받았다”며 “오히려 오열하는 연기가 감정 소모가 심해서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5부 능선을 넘는 ‘작은 신의 아이들’에서는 천재인(강지환 분)과 김단이 중심 에피소드인 ‘천국의 문 집단 번사 사건’을 정조준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극 곳곳에 긴장감과 공포감을 높이는 장치들을 심어둔 덕분에 장르극 애청자들을 확보, 시청률도 안정적으로 3%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옥빈 역시 “초반에는 천재인이 김단을 무시했지만 그도 점점 김단의 사마니즘적인 부분을 받아들이고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는다. 그 부분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8회를 남겨둔 ‘작은 신의 아이들’에서는 최근 천재인과 김단(김옥빈 분)이 ‘악인 3인방’인 왕복사(장광 분), 백희장(이효정), 국한주(이재용)에게로 수사의 망을 좁혀가면서 극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매주 토·일요일 오후 10시 20분 방송. /연합뉴스



김옥빈

솔로로 성공했던 신해철 왜 밴드로 회귀했을까?

‘신해철 In Memory of...’ 음악평론가 강현 출간

1988년 크리스마스이브, 대학가 요제 본선의 마지막 순서, 트윈 키보드에 의한 25마디의 전주곡이 울려 퍼지는 순간, 게임은 끝났다. 한국 대중음악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데뷔곡으로 손꼽히는 ‘그대에게’가 세상에 첫선을 보이는 순간이었다. 신해철과 밴드 ‘무한궤도’는 그렇게 눈부신 데뷔를 알렸다.

신해철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다. 이제 고인의 이름은 의료사고 관련 사회부 기사에서나 간간히 등장할 뿐이다. 음악평론가 강현은 신간 ‘신해철 In Memory of 申海澈 1968-2014’(돌베개 펴냄)에서 고인의 이름 석 자를 다시 소개했다. 1994년 인터뷰어와 가수로 만난 두 사람은 20년간 끈끈한 우정을 지켜왔다. 덕분에 신해철에 대한 가장 사적이고 전문적인 주석이 탄생했다.

책은 솔로로 스타덤에 올랐던 신해철이 밴드로 회귀한 이유가 되겠다. 밴드에서 솔로로 전향하는 일은 허다했지만 반대의 경우는 전무후무했다.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와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로 1990년대 청춘스타로 떠올랐던 신해철은 반대의 길을 걷는다. ‘무한궤도’를 거쳐 ‘베스트’로 발전하며 밴드 포맷을 지켜낸 것. 이후 신해철은 한 가지 트렌드에 합류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다양한 음악 장르, 혹은 음악 이외의 예술을 탐험한다.

저자는 “밴드는 자본이 지배하는 문화산업의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음악 청년들이 자신의 상상력을 억누르는 통제 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공동체”라며 “신해철이 밴드를 지속시키고자 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세상을 등지기 전 신해철은 자신의 노래로 위은 주크박스 뮤지컬도 기획하고 있었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의 암살이 실패했다면?’이라는 발칙한 화두를 시작으로 쓴 작품이었다. 뮤지컬의 플롯과 캐릭터를 완성할 즈음 그는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저자는 홀로 초고를 완성했다. 책은 신해철의 치열했던 고민의 한 단면을 뮤지컬 원고로 보여준다.

강현 지음. 360쪽. 1만6천원.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EBS1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5:00 왕초보 영어	09:30 물랑	15:00 호기심 소녀 도트.	19:30 EBS 뉴스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역주	30 KBC 모닝 730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일본 개항사> 3부 제국주의의 그림자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0:30 한국기행(재)> 3부 제주도의 그림자	15:15 파프리카	19:50 아빠다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국민의 일꾼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템즈	06:0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두부전골과 마늘중무침>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0:40 세계테마기행 <삼성이 뭘다. 페루 3부 인테스의 길 카카만>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06:20 세계테마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15 주시위 요정 큐비주	21:30 한국기행 <여기는 처음이지요 3부 수우도 연가>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MBC스포츠 2018 FIFA 러시아월드컵 출전국 빅매치 <멕시코: 크로아티아>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2:00 EBS 정오 뉴스	16:45 당동명 유치원 1~2(재)	21:50 EBS 다크프라임 <900개의 영혼, 파푸아뉴기니>
11	00 이웃집 할스(재)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재) 55 UHD 한식의 마음	00 추리의 여왕 시즌2(재)		00 열린TV 시사저 세상	07:30 띠띠뽀 띠띠뽀(재)	12:10 EBS 초대석(재) <상상으로 세상을 디자인하다 -강우현 기업인>	17:15 엄마 까투리(재)	22:45 극한직업
12	00 KBS 뉴스 12 3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3:00 지식채널e	17:30 두다다쿵	23:55 질문 있는 특강쇼-빅뱅
1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재)	00 속보이뉴스TV 인사이드(재)	05 TV속의 TV	55 닥터 365	08:00 당동명 유치원 1~2	13:10 세상을 나쁜 개는 없다	17:45 뽀롱뽀롱 뽀로로	24:45 지식채널e
2	10 실크로드의 휴애, 코리아드림을 꿈꾸다(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05 판다랑 35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재)	00 뉴스브리핑	08:30 최강장사, 미니특공대	13:40 미래강연 Q(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너스나니~4	24:50 세계의 눈
3	05 시사기획 창(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8:45 띠띠뽀 띠띠뽀	14:00 미래강연 Q(재)	19:00 몬카트(재)	
4	00 4시 뉴스집중 40 2018 지방선거 정당정책연설 <자유한국당>	00 여유만만	55 뉴스콘서트	00 SBS 스페셜	09:00 독막맨	14:30 미라강연 Q(재)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화산섬의 비밀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스톤에이지 15 영동발달공순이와 친구들 4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50 익스트림 서프라이즈	00 SBS 온뉴스 45 KBC 저녁뉴스		09:15 엄마 까투리	14:30 너티너츠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았어라 55 지식 통조림				
7	00 KBS 뉴스 7 35 공감다큐, 사람	50 인형의 집	15 전생에 헨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공지락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살릴하는 남자들	55 허하랜드 2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50 시사토론 '10'							
10	45 쉼터 50 KBS 뉴스라인	00 추리의 여왕 시즌2	00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00 스위치-세상을 바꿔라				
11	30 문화의 향기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2부	10 싱글와이프 2				
12	20 UHD 이미지 다큐 10부작 음악의 정원 30 인간극장 스페셜(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40 스포츠 다이아리 55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8일(음 2월 12일 己未)

子	48년생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 60년생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헛수고로 귀착될 모양새이다. 72년생 일순간에 성과가 반실할 수 있는 형세이다. 84년생 자의적인 발상은 오만을 야기하여 일을 그르치게 한다. 행운의 숫자 : 66, 04	午	42년생 화합은 부를 일으키며 불화는 부를 파멸시킬 것이다. 54년생 학수고대하여 왔던 것이 시원하게 처리된다. 66년생 여파가 상당할 것이다. 78년생 참에어린 논란에 휩싸일 수다. 90년생 마무리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행운의 숫자 : 21, 48
丑	49년생 기본적인 노력만 경주하더라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을 알자. 61년생 안배를 잘 한다면 부가적 이익도 따를 것이다. 73년생 순간의 착각이 커다란 병폐를 낳을 수도 있다. 85년생 실상상가에 사면초가의 형국이다. 행운의 숫자 : 12, 20	未	43년생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55년생 짐작한다면 역효과가 날 것이다. 67년생 단일한 목적 아래 모여드는 이들이 있다. 79년생 난제를 잘 수습해야만 하는 형국이다. 91년생 어설픈 행하면 아니할만 못하다. 행운의 숫자 : 08, 77
寅	50년생 한 가지 일에 다른 일이 겹쳐서 매우 복잡다단한 형상이 되고 할 수 있다. 62년생 본래의 의지대로 행하여 후회하지 않으리라. 74년생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다. 86년생 예측 가능한 범위 내로 국한하는 것이 순탄하다. 행운의 숫자 : 95, 31	申	44년생 시작은 달라도 귀착하는 바는 대동소이할 것이다. 56년생 피하기나 보류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처함이 바람직하다. 68년생 입 안에서 뱀도아도 발설해서는 아니 된다. 80년생 안정세를 취하면서 견고해지겠다. 행운의 숫자 : 58, 71
卯	51년생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만 후환이 없겠다. 63년생 금석지간에 취한 하루가 될 것이다. 75년생 효과를 보기에는 아직 이른 마당이다. 87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아예 그 실마리를 만들지 마라. 행운의 숫자 : 24, 38	酉	45년생 광택이 나고 풍채가 갖춰지니 길상이다. 57년생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마땅하다. 69년생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면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다. 81년생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8, 33
辰	52년생 안전하지 않다면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64년생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76년생 작은 조치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88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끈기 있게 매달려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02, 16	戌	46년생 바빠서 시간을 쪼개어 쓰려고 애를 먹겠다. 58년생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아도 전혀 틀림이 없다. 70년생 자신감부터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82년생 계획이란 구체적이고 내용성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70, 75
巳	53년생 변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니라. 65년생 고정 관념의 틀을 깨지 않으면 절대로 아니 된다. 77년생 주체성과 독창성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89년생 의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라. 행운의 숫자 : 44, 70	亥	47년생 준비가 덜 되었다면 굳이 지금 나설 필요가 없다. 59년생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문제가 수습될 것이다. 71년생 뜻밖의 행운이 찾아 들 수도 있는 길일에 해당한다. 83년생 부수적인 것까지 살펴보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90, 21

“전환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